

순천시, 원도심서 '문화콘텐츠 대축제' 연다

7~8일 시민로 남문터광장 일원 창작 마켓·인기 캐릭터 팝업 등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비전 제시 행사기간 일부 구간 차량 통제

전라남도 순천시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시민로와 남문터광장 등 원도심 일원에서 문화콘텐츠 대축제를 연다.

1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인 '주말의 광장', 콘텐츠 축제 '원츠(Wants) 순천'과 정책 축제 '알고잇슈(Issue)' 등을 연계해 원도심 전역을 새로운 문화광장으로 재탄생시킨다.

먼저 '주말의 광장'은 차량이 다니던

도로를 콘텐츠로 채워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도심해방로드로 원도심에서 처음 선보이며 연중 도심 권역별로 확대될 예정이다.

원도심 시민로 일원에서는 유명 크리에이터 창현의 거리노래방과 춤추는 곰돌이 랜덤댄스, 아와 레이저데그, 인기 캐릭터 팝업스토어, 창작마켓, 캐리커처,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같은 기간 남문터광장 일원에서는 콘텐츠 축제 '원츠 순천'과 정책 축제 '알고잇슈'가 함께 열린다. '원츠 순천'은 원도심 웹툰·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순천의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시 대표 캐릭터인 '루미·똥이' 팝업매

장, '신비아파트' 싱어롱쇼, 인기 캐릭터 '벨리곰' 편 위킹, 애니메이션 '퇴마록' 상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알고잇슈'는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아동·청소년, 청년·신혼부부 등 계층별 부스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정보를 제공하며 주제관에서는 순천의 도시 위상 변화와 미래 비전을 시각적으로 소개한다.

아울러 옥천변에는 인기 캐릭터 '몰랑이' 조형물이 포토존 역할을 하고 도심 속 캠핑형 휴식공간, 옥천 포차도 함께 운영된다. 원도심 골목 상권과 연계한 배달존도 운영되어 지역 음식과 상점 홍보에도 힘을 기울인다.

문화의 거리에서도 지역 소상공인과

창작자가 참여하는 로컬 플라마켓인 '금꽃마켓'과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경연대회인 '청소년예술제'가 열려 축제의 분위기를 더한다.

어두웠던 도심의 저녁은 이틀간 메인 공연으로 밝게 채워진다. 7일은 인기 가수 '에일리'가 참여하는 원츠쇼가, 8일은 인기 밴드 '데이브레이크'를 필두로 엔딩 로드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원도심 전체를 문화콘텐츠로 채우고 나아가 젊은이들과 기업이 몰려드는 살아있는 문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기간 동안 시민로 일원(글로벌웹툰센터~K2)과 남문터광장 옆 옥천길 일부 구간의 차량이 통제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시, 청렴도 향상 대책 점검 취약 분야 개선 방안 논의

전라남도 여수시는 지난달 30일 상황실에서 정기명 시장과 국·소·단장 등 간부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회의의 결과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회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종합대책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상향을 목표로 '시민 체감 청렴인식 강화', '청렴한 소통 공직문화 조성', '반부패·청렴 인프라 구축 및 내부통제 강화' 등 3개 추진전략 및 35개 세부 시책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노사가 함께하는 청렴한 데이 △외부 민원인 및 내부 직원 자체 청렴도 조사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청렴 문화 콘서트 운영 △'청렴한 아침방송' 등 시책으로 청렴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기명 시장은 "공직감찰을 강화하고 수시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비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마음보듬 상담소' 참가자 모집 광양청년꿈터

전라남도 광양청년꿈터가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기 이해를 돕기 위해 '마음보듬 상담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광양청년꿈터에서 해당 프로그램 참가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마음보듬 상담소'는 오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운영되며 TCI 심리검사 상담과 음악 치료 상담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모집인원은 각각 30명과 10명이며 광양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TCI 심리검사 상담은 개인의 기질과 성격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문상담사와의 해석을 통해 자기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상담은 1:1 또는 2:1(연인, 부부, 친구 등) 형태로 진행되며 직장과 학업 등으로 바쁜 청년들을 위해 평일 저녁 시간과 토요일에 운영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음악 치료 상담은 전문 음악 치료사의 지도 아래 음악을 매개로 감정을 표현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심리상담 기반 프로그램이다. 1:1 형태로 진행되며 청년들의 정서 회복과 감정 소통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광양청년꿈터 누리집(<https://gwangyang.go.kr/youth/>)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양청년꿈터(061-818-2020)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친환경 인증농가 전략품목 육성 고흥군, 4일까지 접수

전라남도 고흥군이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공급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인증 품목의 다양화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을 오는 4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은 마늘, 토마토, 참다래를 생산하는 농업(법)인이 친환경 농산물 유통업체와 약정을 체결하면 농업(법)인에게 ha당 15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채소·과일류 등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품목을 학교급식 등에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소비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친환경 농업인의 농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 생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광양시,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전라남도 광양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 제안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9일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며 참여 희망자를 4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건전성 확보는 물론 주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이번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시민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예산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토론을 통해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예산 제안서를 직접 작성하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정용균 광양시 기획예산실장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안이 광양의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되는 만큼 주민참여예산학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지난달 28일 여수시청직원들이 화양면 안포리 일원 마늘밭에서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

전라남도 여수시가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자 지난달 28일 화양면 안포리 소재 친환경 마늘밭을 찾아가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일손 돕기에

는 농업기술센터와 화양면, 농협시지부(지역농협) 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마늘 0.7ha를 수확하고 선별작업을 지원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창구를 마련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 일손 돕

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사회봉사 단체에서도 동참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마늘 수확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농촌 일손 돕기를 비롯해 적기 영농 실현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구례군, 민간정원 페스타 개최

쌍산재, 천개의 향나무숲, 반야원 3곳

전라남도 구례군은 오는 7일까지 민간정원 3곳(쌍산재, 천개의 향나무숲, 반야원)에서 '2025 전라남도 민간정원 페스타'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 개최지는 모두 '2024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나란히 선정된 명소다. 구례군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정원이 선정된 지역이자, 지역 내 모든 민간정원이 동시에 선정된 유일한 지역으로 기록됐다.

'3정·3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페스타는 각각의 정원이 가진 고유의 특성과 매력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쌍산재는 300년 고택의 맛과 전통 정원의 정취를, 천개의 향나무숲은 1000그루의 향나무와 목서·매화의 은은한

향기를, 반야원은 플라타너스와 소나무 숲, 청량한 연못이 어우러진 고요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 정원의 개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 공연 등이 진행된다. 다과와 한복 등 전통문화 체험, 정원 소품 만들기, 시화 및 미술 전시회 등 관람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여기에 더해 지역 주민과 관람객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리마켓과 지역 특산물 판매 부스도 운영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정원이며 자연을 품은 천국 같은 곳이라 자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 정원문화의 품격을 더욱 높이고 이와 연계한 문화·예술·치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